

매각카드로 각자도생 나선 큐텐 계열사… 실현 가능성 낮아

인터파크커머스 등 매각방안 모색
주관사 결정 힘들어 매각 힘들 듯
알리 "위메프 인수계획 전혀 없다"
피해자·소비자들 고소장도 잇따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AK몰 등이 이번 티메프 사태 여파로 각자 매각 작업에 나선다.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위메프 등이 존폐위기에 서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메프의 매각 추진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큐텐그룹 산하 각 계열사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동의 하에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매각 작업 과정에서 계열사들에게 각자 생존방안을 모색하라고 전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위메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 지분 일부를 넘기려 한다는 매각설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구영배 큐텐 대표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위메프 대표가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시스

큐텐이 지난해 3월 인수한 인터파크커머스는 독자적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큐텐그룹에 묶여 도미노처럼 상황이 악화하다 보니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 됐다"며 "최대한 많은 판매자를 구제하려면 독자 경영이 필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가 회사 매각 카드를 꺼냈지만 실제 매

각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회생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매각을 추진하려면 기업가치 평가와 매각 주관사를 정한 뒤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데 주관사 결정이 힘들 것이라는 게 이유다.

앞서 위메프의 매각 협상대상자로 언급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메프 인수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알리 측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위메프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

며, 관련 기업과 접촉한 사실도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영향으로 셀러 정산금 지연을 겪고 있다. 이들이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규모는 인터파크쇼핑이 35억원, AK몰이 1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계 전반이 피해 최소화해 중점을 맞춘 가운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도 속력이 붙었다.

판매자들은 1일 오전 서울 강남 경찰서를 찾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앞에 선 판매자들은 "빠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며 "경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판매업체 대표 정주희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는 힘들게 칫솔, 쌀, 의류, 완구, 휴지 등 일반 생활필수품을 겨우 겨우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이라며 "각종 인터넷 비교 및 업체들의 할인 요청에 제살깎아먹기 식으로 전쟁과 같은

가격 경쟁에 뛰어난 판매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티몬과 위메프는 이런 피 같은 판매자들의 물건 대금을 본인들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마구 사용했다"며 "생업 때문에 당장 발 벗고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피해 금액이 너무 커서 희망을 못 찾고 있는 이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판매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튿날인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아울러 사용자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업체 해피머니앤씨 대표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됐다.

정치권에서는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구체적으로 긴급간담회는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의 미정산'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업체들이 모여 미정산된 상황들을 정치권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반도체의 힘… 수출 10개월째 플러스 행진

7월 수출 574.9억달러… 13.9% ↑
반도체, 4개월 연속 50% 이상 늘어

9대 주요시장 중 8개 지역 수출 증가
대미 수출 745억달러… 中 이어 2위

수출이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 달러를 돌파해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누계 기준 올해 수출 1위를 지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7월 수출입 동향(7월31일까지 통관기준 잠정치)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 달러다. 이는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10개월 연속 플러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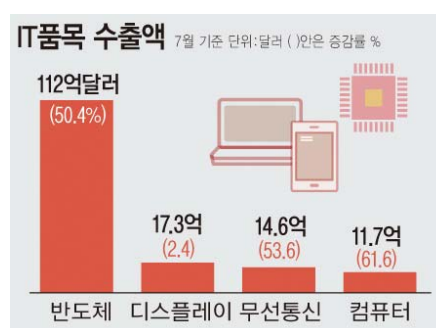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등 IT 전 품목을 비롯해, 일반기계·차 부품, 석유제품·석유화학, 바이오, 가전, 섬유 등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합산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2억 달러(+50.4%)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7억 달러)는 12개월, 컴퓨터(12억 달러)는 7개월, 무선통신기기(15억 달러)는 5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계 하계휴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 감소한 5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9.5% 증가한 22억 달러를 수출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일반기계 수출은 역대 7월 중 최대치



인 49억 달러를 기록,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석유제품(45억 달러), 석유화학(42억 달러) 수출은 각각 5개월,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바이오헬스(12억 달러), 섬유(9억 달러), 가전(7억 달러) 수출도 1개월 만에 증가가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8개 지역 수출이 늘었다.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른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이 늘면서 2022년 10월(122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114억 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수출 100억 달러 이상을 이어갔다. 특히, 1~7월 누계 대중국 수출은 지역별 최대 수출액인 748억 달러로 수출액 1위다.

대미국 수출도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인 10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7월까지 누계 대미국 수출은 745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IT 품목과 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7월 중 2위에 해당하는 99억 달러를 기록, 대인도(16억 달러) 수출과 함께 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다. 대중동 수출(22억 달러)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7월 수입은 53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5%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16.1%)·가스(+23.8%) 수입 확대도 11.9% 증가한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무역수지는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다. 1~7월 누적 흑자 규모는 2018년 이후 최대치인 2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2억 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면서 하반기 수출도 쾌조의 출발을 했다"며 "특히 다수 수출 품목과 대다수 주요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며 골고루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윈윈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능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원의 무역 금융, 1조원 규모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현장지원단을 집중 가동하는 등 우리 기업이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다음주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가능성"

전력당국 긴급 현장점검

내주 평일 17~18시경 피크 예상

전력당국이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다음주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된 이번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7월부터 누적인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1일 "다음 주 평일 오후 17~18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기가와트(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최남호 2차관이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 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엔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에도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차관은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수급 현장을 지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글로벌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 불가피"

>> 1면 'K뷰티, 홍콩·대만행...'서 계속

이러한 상황에서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K뷰티의 다음 성장을 이어갈 국가로 글로벌 영향력, 구매력 등을 고려할 때 중화권 시장이 다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외 중화권 국가가 과거에는 중국 본토 진출을 위한 우회 경로였다면 현재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해외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틈새 시장으로서 탐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중국 본토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내수 시장이

작을수록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대형 브랜드와의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예고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홍콩 화장품 시장은 지난 2022년 이후 엔데믹 전환 국면과 함께 회복세에 있어 오는 2027년에는 5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화장품 시장의 경우도 최근 3년간 매년 4~5%대로 커지고 있어 2027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